

# ERICA40년사/발전하는 안산캠퍼스

[ERICA40년사](#) 중 안산캠퍼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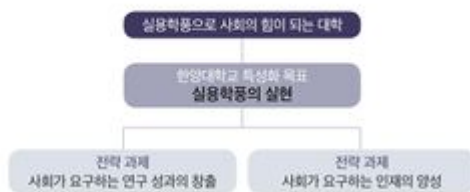
## 목차

- [1 대학의 특성화 전략](#)
- [2 교육 및 학사행정의 변화](#)
  - [2.1 교육과정의 다양성](#)
  - [2.2 국제화 교육의 확대](#)
  - [2.3 학과 통폐합](#)
- [3 시설의 확충](#)

## 대학의 특성화 전략

-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사명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한 대학의 큰 과제는 바로 대학별 특성화였다. 대학별 특성화를 통해 각 대학들이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차별화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각 분야의 인재들을 적절하게 길러냄으로써, 교육의 최종 수혜자인 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양대학교는 이러한 대학 특성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년 여에 걸친 광범위한 연구 조사를 거쳐 1994년에 수립한 ‘중장기 발전전략’에서 ‘실용학풍의 실현’을 특성화 목표로 설정하였다.

▪ 특성화 목표 및 전략 과제



### 특성화 목표 및 전략 과제

이는 일제 강점기 ‘기술보국’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출발하게 된 한양의 정신과 결합되는 것으로 한양대학교의 교육과 연구의 근본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대학에서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와 교육’을 새로운 ‘실용’의 개념으로 정립하였다. 정보화사회, 후기산업사회에서는 그동안 ‘순수’라고 인식되어 왔던 각 영역분야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회적 요구와 결합하였으며, 서로 독자적인 분야로 인식되어 오던 학문 분야들도 과감하게 벽을 허물고 결합하여 새로운 학문을 탄생시켰다. 한양대학교는 ‘실용학풍의 실현’이라는 목표 하에 어떤 특정 분야만을 육성하는 소극적인 특성화가 아니라 현대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연구와 교육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창출하고자 하는 지향 목표이자 학문적 풍토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특성화 목표에 따라 한양대학교는 ‘사회가 요구하는 연구 성과 창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의 양성’이라는 하위목표를 설정하고 연구와 교육을 통해 현실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교육 및 학사행정의 변화

- 1990년대에는 교육과정 역시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기존의 교육과정을 대폭 개편하여, 졸업학 점의 축소, 조기졸업제, 복수전공제, 부전공제의 시행, 학점이수기회를 확대하고 성적평가방법을 다양화 하는 등 많은 변화를 시도했다. 특히 사회봉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였고, 국제화교육의 확대, 영어전용교과목 운영, 수업 운영의 다양화 등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개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수요자 중심교육', '열린교육'이었다.

## 교육과정의 다양성

- 이전까지 학생들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이었으나, 1997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졸업학 점을 135학점으로 축소 조정(다만, 학문적 특수성이 인정되는 공학대학의 경우 140학점을 적용) 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권을 신장하고 적정 시간수의 수업으로 교육과 연구의 질을 향상하며, 학생들이 교과 수업 이외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다중전공제 실시에 따른 수업 부담률을 줄이며, 조기졸업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조기졸업은 교육법상 졸업학점이 140-150학점으로서 높은 편이었고, 조기졸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미비로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였으나, 1997학년도부터는 우리 대학에서 졸업학점을 축소하고 최소전공 인정학점을 낮추었으며,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학생들의 요구와 능력에 따라 조기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던 것이다. 또한, 복수 및 다중전공제를 시행하여 학생들이 여러 학문 분야의 통합적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지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 또한, 한양대학교는 학생들의 리더십과 인간미 배양이라는 목표의 실천을 위하여 1994년 12월 국내 최초로 사회봉사단을 발족하였고, 1995학년도 1학기부터 사회봉사 과목의 학점화를 시행하였다. 사회봉사 교과목은 계절별로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로 년 4학기제로 운영되며, 교양선택 실습과목으로 설정하여 1학점을 인정하였다. 한 학기 수강시간은 기본교육 2시간, 실습 30시간 이상, 기말평가회 2시간 등 총 34시간을 봉사하여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평가는 실습태도, 출석상태, 실습보고서, 기말평가회 참석 여부를 가지고 담당 교수가 Pass/Fail로 성적을 부여하였다.

## 국제화 교육의 확대

- 외국어전공 학생들의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해당 외국어에 대한 수용능력을 증진하고, 외국어전공에 대한 학습동기를 유발하여 학업 성취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교에서는 1996년 7월 1일부터 1996년 8월 31일까지 4주에서 8주간 외국어계열 학과 학생들에게 단기 해외연수를 실시하였다. 1996학년도에 안산캠퍼스 문과대학 학생들의 해외 어학연수 실시현황은 다음과 같다.

1996학년도 해외 어학연수 실시현황

구분	학과	대상인원	대상국가	기간
문과대학	일어일문	15	일본 동해대학	6.28~8.3(5주)
	중어중문	50	대만 국립정치대학	7.1~8.23(8주)
	영어영문	25	영국 New castle 대학	6.29~7.31(5주)
	독어독문	15	독일 Bayreuth 대학	7.31~8.31(4,5주)
	불어불문	15	파리 Catholigue대학	7.1~7.30(4주)

## 학과 통폐합

- 1995년 이후 안산캠퍼스는 학제간 공동연구 및 교육의 활성화와 대학원 중심교육의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유사학문 영역의 통합추세에 부응하며, 정부의 5·31교육개혁을 적극 수용하고자 학과 통합을 추진하였다. 학과 통합시에는 학문적 성격의 유사성이 첫 번째 준거가 되었으며, 학제적 연구의 가능성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서로 다른 성격의 학문으로 분화되어 있었지만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통합됨으로써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학과들을 통합하게 된 것이다.

- 이에 따라 우리 대학은 1995년도에는 경상대학의 경제학과와 무역학과를 통합하여 경제학부로, 경영학과와 무역학과, 회계학과, 보험경영학과를 경영학부로 통합하게 된다. 이어 1996년도에는 공학대학의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계산학과, 제어계측공학과를 전자·컴퓨터·전기·제어공 학부로, 이과대학의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화학과, 지구해양학과를 이학부로, 또한 체육 과학대학의 체육학과와 경기지도학과도 체육·경기학부로 통합되게 되었다. 이후에도 학과통폐합 은 계속 이어져 1997년도에는 공학대학의 금속재료공학과와 화학공학과가 재료화학공학부로, 기계공학과와 산업공학과가 기계산업공학부로 통합되었으며, 전자·컴퓨터·전기·제어공학부는 전자·컴퓨터공학부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또한, 문과대학에서는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독어독문학과가 외국어문학부로, 국어국문학과, 문화인류학과가 인문 학부로 통합되었다. 언론정보대학에서도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사회학과를 통합하여 언론 광고사회학부로 통합하였고, 디자인대학의 공예과와 산업디자인학과가 디자인학부로 통합되었다.
- 또한 1998년에는 법학대학이 폐지되며 서울캠퍼스의 법과대학과 통합되었다. 법학대학은 그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운영의 비효율성, 전공과목별 전임교수 확보의 곤란성, 다수의 선택과목 미설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었으며, 정책적으로 고시반제도를 두었으나 우수한 인재 확보의 어려움과 재정지원의 미흡 등으로 좋은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고, 양 캠퍼스의 이원적인 고시반 운영으로 경비의 비효율성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기에 이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 캠퍼스 법과(학)대학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의 차원에서 검토된 바 있다. 그 결과 학교당국이 위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통합을 추진한 결과 교육부의 1998년 대학입학정원 조정결정에서 법학대학의 입학정원이 폐지되고, 서울캠퍼스 법과대학의 정원이 260명으로 60명 증원되었다. 법학대학의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는 다음과 같이 발표 되었다.
- 첫째, 안산캠퍼스 법학대학의 폐지된 학년에 복학할 학생은 서울캠퍼스 법과대학으로 복학

한다.

- 둘째, 현재 2,3,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공간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안산캠퍼스에서 수강하여 졸업증서에는 법과대학의 졸업으로 한다.
- 셋째, 법학대학은 완전한 통합이 될 때까지 종래와 같은 단과대학의 형태로 운영하며 행정적으로는 법과대학 부학장이 통괄한다. 특히 고시반이나 학생회도 단과대학에 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학과 설치 연표

	대학/학과	설치	비고
	외국어문학부	1997.03	
	중어중문학과	1981.03	학부 통합(97.3)
	일어일문학과	1980.03	학부 통합(97.3)
	영어영문학과	1980.03	학부 통합(97.3)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1980.03	학부 통합(97.3)
	불어불문학과	1980.03	학부 통합(97.3)
	인문학부	1997.03	
	국어국문학과	1983.03	학부 통합(97.3)
	문화인류학과	1997.03	학부 통합(97.3)

	언론광고사회학부	1997.03
언론대학	사회학과	1983.03 학부 통합(97.3)
	신문방송학과	1983.03 학부 통합(97.3)
	광고홍보학과	1989.03 학부 통합(97.3)
	수학과	1983.03 학부 통합(96.3)
이과대학	물리학과	1983.03 학부 통합(96.3)
	화학과	1983.03 학부 통합(96.3)
	생화학과	1984.03 학부 통합(96.3)
	지구해양과학과	1984.03 학부 통합(96.3)
법과대학	이학부	1996.03
	법학과	1983.03 학과 폐지(98.3)
	경제학과	1980.03 학부 통합(95.3)
	경제학부	1995.03
경상대학	경영학과	1980.03 학부 통합(95.3)
	경영학부	1995.03
	무역학과	1980.03 학부 통합(95.3)
	회계학과	1980.03 학부 통합(95.3)
디자인대학	보험경영학과	1977.03 학부 통합(95.3)
	디자인학부	1997.03
	산업미술과	1984.03 산업디자인과로 개명(94.3)
	산업디자인학과	1994.04 학부 통합(97.3)
	공예과	1983.03 학부 통합(97.3)
	조형디자인학부	1998.03 야간학부로 신설
생활체육대학	생활스포츠학부	1997.03
	체육학과	1981.03 학부 통합(97.3)
	경기지도과	1983.03 학부 통합(97.3)
	체육경기학부	1996.03 생활스포츠학과로 개명(97.3)
	무용과	1981.03 생활무용예술학과로 개명(98.3)
	생활무용예술학과	1998.03

	건축공학과	1985.03 학부통합(99.03)
	토목공학과	1985.03 토목환경공학과로 개명(94.11)
	토목환경공학과	1994.11 학부통합(99.3)
	교통공학과	1988.03 학부통합(99.3)
	건설교통공학부	1999.03
	전기공학과	1979.03 학부통합(96.3)
	전자공학과	1979.03 학부통합(96.3)
	전자계산학과	1985.03 학부통합(96.3)
공학대학	제어계측공학과	1989.03 학부통합(96.3)
	전자컴퓨터전자제어공학부	1996.03 전자컴퓨터공학부로 개명(99.3)
	전자컴퓨터공학부	1999.03
	금속재료공학과	1980.03 학부통합(99.03)
	재료화학공학부	1999.03
	기계공학과	1979.03 학부통합(99.03)
	산업공학과	1980.03 학부통합(99.03)
	기계산업공학부	1999.03
	화학공학과	1987.03 학부통합(99.03)

## 시설의 확충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는 1980년 이학관을 시작으로 주요 건물들을 준공하기 시작했다. 81년 9월 제1학생생활관 까지 총 7개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대학의 중심인 본관을 83년 3월 완공하기에 이르렀다. 80년대와 90년대를 지나면서 정부의 휴교령 선포, IMF와 같은 경제 한파를 겪는 등 사 회적 영향과 수도권 대학 제한에 따른 준공 허가의 지연으로 그 발전의 속도가 더디어지긴 했지만 꾸준히 이어졌다.

### 199년 완공된 건축물 현황

개관	건물명	건물개요
1980.03	이학관	지하1,지상4
1980.03	제1학술관	지하1,지상4
1980.03	교수연구동	지하1,지상4
1980.03	제1공학관	지하1,지상5
1980.03	인문관	지하1,지상4
1980.03	학생복지관	지하1,지상5
1981.09	제1학생생활관	지하1,지상5
1983.03	본관	지하1,지상4
1983.03	제2공학관	지하1,지상4
1983.03	학술정보관	지하1,지상4
1985.09	체육관	지상2
1989.03	제1디자인관	지상3
1989.03	사회과학관	지하1,지상4
1990.03	제2학생생활관	지하1,지상5
1991.03	공예관	지상1

1991.09 백남학술관	지하1,지상4
1992.03 학군단	지하1,지상2
1995.03 사회관	지하1,지상4
1995.03 구조실험관	지상2
1995.03 학생회관	지하1,지상5
1996.09 제3공학관	지하1,지상5
1998.11 제4공학관	지하1,지상5
1999.03 제2디자인관	지상4
1999.09 제3학생생활관	지하1,지상5